

가정 예배 모범

- 2022_06_19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6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축복송(때로는 너의 앞에)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사무엘상 26장 13~ 25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23,24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다윗의 행동에 대해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25절)

사울은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축복해 줍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며 큰일을 행하며 승리할 자임을 전합니다. 사울의 축복의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각자 자기 갈 길로 갔으며,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권능을 주셨고, 늘 다윗과 함께하심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며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